



광주 광산구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가 10일 오후 광산구 사무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방송사 출구조사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뉴스시스



10일 실시된 4·15 총선에서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박지원 후보가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박지원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광주·전남 당선자 <10일 오후 11시 기준>

광주 동남갑	광주 동남을	광주 서구갑	광주 서구를
정진욱<민>	안도걸<민>	조인철<민>	양부남<민>
광주 북구갑	광주 북구를	광주 광산갑	광주 광산을
정준호<민>	전진숙<민>	박군택<민>	민형배<민>
목포	여수갑	여수을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원이<민>	주철현<민>	조계원<민>	김문수<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나주화순	담양함평영광장성	고흥보성장흥강진
권향엽<민>	신정훈<민>	이개호<민>	문근주<민>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민...더불어민주당	
박지원<민>	서삼석<민>		

민주 광주·전남 18석 '씩씩이'...정권 심판

현역 교체율 광주 88%·전남 50% 달해
 '견제·균형·다양성' 없는 호남정치 한계

'정권심판론' 태풍이 제22대 총선을 휩쓸면서 광주·전남은 이번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8석 전석을 석권했다. 지역 유권자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전략적 교차투표도 현실로 나타났다. 제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가 반복돼 견제와 균형 등 다양성을 상실한 호남 정치가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현역 국회의원 교체율도 광주

88%(8명 중 7명), 전남 50%(10명 중 5명)에 달해 정치 신인들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얼마만큼 정치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2대 총선 개표 결과 민주당이 광주 8석, 전남 10석을 모두 차지했다.(오후 10시 20분 개표 기준)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5대 총선 이후 24년 만에 전석을 석권한 데 이어 또 다시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힘입어 18석에 모두 것발을 꽂았다.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광주·전남

선거구 18곳 모두 후보를 공천하며 의욕적으로 나섰다. 정권심판론 앞에 속수무책이었다. 민주당에 대항할만한 이렇다할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광주·전남 지역구 본 선거는 맥빠진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다만 조국혁신당 창당 후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선거 분위기가 다소 꺾여올랐다. 5선 의원에 전남도지사,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이낙연 새토운미래 대표가 광산구에 출사표를 던졌으나, 기울어진 표심을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옥중 창당, 옥중 출마로 광주 서구 갑에 출사표를 던진 송영길 소나무

당 후보, 녹색정의당, 진보당 등 군소 정당도 정치적 공간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광주·전남 정치 지형은 민주당 독식이다. 5선 1명, 4선 1명, 3선 2명, 재선 3명, 초선 11명으로 재편됐다. 운동권 출신 풀뿌리 토종 정치인이 물러나고 행정관료, 검사,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 등이 빈자리를 채웠다. 광주는 광산을 민형배 당선인을 제외한 7명이 초선이다. 전남도 민주당이 10석 모두 것발을 꽂은 가운데 4명이 초선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면서 정치 문화가 정체 또는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기 기자

최종투표율 광주 68.2%·전남 69%... 32년 만에 최고

14대 총선 이래 최고투표율... '마의 70%'는 못 넘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광주·전남 최종 투표율이 광주 68.2%, 전남 69%로 나타났다. 32년 만에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투표 참여 열기가 두드러졌지만 마의 70%는 넘지 못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총선 투표가 공식 종료된 최

종 투표율(사전·거소·선상·재외 투표 합산)은 광주 68.2%로 전남 69.0%로 집계됐다. 광주 전체 선거인 119만9920명 중 81만8365명이, 전남은 156만5232명 가운데 108만 202명이 이번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1992년 14대 총선에서 광주

70.1%, 전남 75.4%를 기록한 이래 3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그러나 '마의 70%'는 이번에도 넘지 못했다. 이후 역대 광주 총선 투표율은 15대 64.5%, 16대 54%, 17대 60.2%, 18대 42.4%, 19대 52.7%, 20대 61.6%, 21대 65.9%였다. 전남의 경우 15대 69.7%, 16대 66.8%, 17대 63.4%, 18대 50.0%, 19대 56.7%, 20

대 63.7% 21대 67.8%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전남 투표율 69%는 세종 70.2%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두번째로 투표율이 높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광주 5개 자치구 중 동구가 70.2%로 유일하게 투표율이 70%대를 넘겼다. 이어 남구 69.6%, 서구 68.1%, 북구 68%, 광산구 67% 순이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구례가 75%로 가장 높았다. 곡성 74.3%, 함평 74.1%가 뒤를 이었다. /김도기·김 호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제례·공연 마당
 남악제례
 현공다례
 문화예술 공연
 백두한라예술단 초청 공연
 읍·면 농악경연대회
 읍·면(초등대항) 율놀이 대회
 길거리(초등대항) 씨름대회

군민 한마당
 군민노래자랑
 시가행진
 읍·면 입장식
 군민의 날 기념식
 군민체육대회(줄다리기 등 8종목)

천년의 역사 속으로 떠나는 여행

지리산 南岳祭

제80회 지리산남악제
제43회 군민의 날 행사

전시·체험 마당
 우리차 시음회
 전통떡 만들기
 사진작가협회 작품 전시회
 한국미술협회 구례지부 전시회
 읍지락 꿈지락 작품전시
 한지공예 전시
 기념품 만들기 체험

경연·참여 마당
 남악시예백일장 및 작품전시회
 남악제 글짓기 대회
 내고장문화재 그리기대회
 전국 정가 시조경창대회

2024. 4. 18. 목 ~ 20. 토
 화암사 시설지구·공설운동장·구례군 일원

주최·주관 |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후원 | 구례군 문화재청
 문의 | 061) 780-2727